



지난달 31일 광주동명교회와 NK비전센터, 손에 손잡고 등 탈북민 지원단체가 주관하고 광주하나문화교류센터가 준비한 제 5회 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북한 음식을 먹고 있다. 서흥실기자 zorba85@srb.co.kr

# “이북 음식 먹으며 그리움 달래요”

### 지난 31일 제 5회 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 ‘웃음꽃’ 속도전 떡·두부밥·이북식만두 나누며 명절 분위기

“음미야 이게 뭐니 번개떡 아니냐?”  
 “노이는 속도전 떡을 번개떡이라고 부르는구나야.”  
 옥수수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휘저어 5분만에 만든다 해서 ‘속도전 떡’이라고 이름붙은 음식 앞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은 간만에 고향음식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이처럼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 광주 동구 동명교회에서는 북에 가족을 남겨둔 북한 이탈주민들의 향수를 달랠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동명교회와 NK비전센터, 손에 손잡고 등 탈북민 지원단체가 주관하고 광주하나문화교류센터가 준비한 제 5회 남북 설음식 나눔 한마당 행사가 이날 열렸다.  
 올해로 다섯번째 열린 행사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북한 이탈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화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설은 큰 명절 중에 하나다. 살림이 어려워도 없는 음식으로나마 제사를 지내며 제기차기나 줄넘기를 하며 명절 분위기를 낸다고 북한 이탈주민들은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북한 음식들도 마

련돼 눈길을 끌었다.  
 남북 자원봉사자들이 이뤄진 광주하나문화교류센터는 떡갈비, 튀김, 전갈은 흔히 볼 수 있는 명절 음식을 마련함과 더불어 몇가지 북한 음식들도 준비했다.  
 바로 옥수수가루와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속도전 떡과 튀김 두부 사이에 밥을 집어넣어 마치 유부초밥처럼 생긴 두부밥, 그리고 두꺼운 만두피 속에 고기와 야채가 듬뿍 든 이북식 만두다.  
 속도전 떡은 간식으로 많이 먹고 한 번 먹으면 며칠은 든든해서 북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이다.  
 북한 음식이 등장하자 북한이탈주민들은 고향집이라도 온듯 접시에 듬뿍담았다.  
 음식을 한자리에서 나누며 북한 이탈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며 웃음꽃을 피웠다.  
 환경북도 청진이 고향이라는 김모(50·여)씨는 “이북식 순대도 만들고 하던 예전보다는 못해도 이정도만 봐도 고향 분위기가 난다”며 “여기는 사람들은 다들 단신으로 탈북해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향 생각이 안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김씨는 “나이 많고 북한말을 쓰느라 낯설고 많이 먹었지만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독거노인이나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처럼 예전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도 줄었고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세대도 많았다.  
 역시 환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서은숙(38·여)씨는 탈북한 지 8년만에 전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도 취득하고 이제 강의로 나선다.  
 서씨는 “설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는 데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북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내려왔으니 고향 생각이 간절해서 시댁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남편에 감사한 마음이다”며 “두 아들과 함께 올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올해 포부를 전했다.  
 환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김인옥씨는 이북식 요리의 달인이다.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에서 두 차례 수상하며 그 실력을 뽐냈고 최근에는 그 실력을 살려 이북식 음식을 남도 입맛에 맞게 접목시킨 김치와 순대, 명태식혜, 장아찌를 판매하는 업체 ‘함흥야지매’를 무

안에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려 한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NK비전센터(New Korea비전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손에 손잡고’ 호남지부를 설립하며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학교, 밥상공동체, 목요기도모임, 문화사역(음악과 연극공연), 겨울맞이 감장나눔, 남북한 명절 음식 나눔 한마당, 구출사역, 탈북 2세 고아사역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광주에만 62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우철 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성실해서 1~2년이면 식당이든 공장이든 자신의 자리를 잡고 새 출발을 시작해 나간다”며 “그러나 여전히 초기 정착 과정에서 편견과 그릇된 인식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부 정책 안건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더 남북관계가 개선될텐데 우리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서흥실기자 zorba85@srb.co.kr

## 설 연휴, 광주·전남 사건사고 잇따라

###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방화 추정 화재 등

기해년 설 연휴 동안 광주·전남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6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설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3시9분께 함평군 학교면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함평나비터널 내에서 차량 4대가 추돌,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곡성군 옥곡면 호남고속도로 옥곡나들목 인근에서는 노산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4일 오후 11시54분께에는 모 해군 부대 이모(21) 하사가 목포시 영산강 하구 독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A(2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 하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9%(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항집에 가던 길에 고장 난 차량을 살피던 중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31일에는 광양에서 공사차량 이 고장 차량을 살피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4일 오후 10시10분께에는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B(61)씨가 흥기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찢러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가족과 술을 마신 뒤 화투 치던 중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3일 오전 10시21분께에는 광주 동구 산수동 한 빌라 C(49)씨 집에서 난 불로 C씨가 중상을 입고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집 29.7㎡를 태웠으며 소방서 추산 86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C씨가 옷가지에 불을 질렀다”는 부인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16분께엔 목포시상동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흥기로 위협,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D(59)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됐다. D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설 명절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는 일평균 1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40.5건으로 지난해 명절 대비 6.6% 줄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오늘 전남지역 축산 농가 일제 소독

### 도, 설 연휴 유입 오염물질 완전 제거 목표 소독기 총동원

전남도가 설 연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기경보수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7일 도내 모든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소독은 연휴기간 유입됐을 지 모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장비는 지자체 36대, 군 제독차량 1대, 농협 공동방제단 99대, 들녘경영체 소독기 8대, 과수 SS살포기 15대 등 159대가 동원된다.  
 주요 소독장소는 밀집 사육지역,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설 연휴 기간 전남도는 1천299대의 소독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2만2천722개소의 농가와 축산시설 소독을 했다.  
 설 연휴기간인 지난 3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진 군동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구제역 방역대책을 살피는가 하면 6일엔 박병호 행정부지사가 함평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전남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이다.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끝마친 지금부터는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매일 자기 농장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순환기자 shyoon@srb.co.kr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오늘 검찰 송치 예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검찰에 기소·전송으로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 선수에게 문자메시지로 강요·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신빙성이 높고, 휴대전화 등에서 복원된 SNS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 심 선수의 진술과 같은 점 등을 들어 기소·전송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뉴스

**광주 CBS**

**광주 CBS 음악FM**

**2019. 1. 9 개국**

CBS 인터넷 라디오  
개인보유

**CBS RADIO**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09:00~11:00



**서수현의 <매일 주와 함께>**  
11:00~12:00



**한동준의 <FM팝스>**  
14:00~16:0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6:00~18:00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8:00~20:00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0:00~22:00

Less Talk More Music

**최고의 음악채널**

**광주 CBS 음악FM**

**FM 98.1 MHz**

■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 음악FM 97.1 ■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 서부산 음악FM 105.3 ■ 광주CBS FM 103.1 / 음악FM 98.1 ■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 고창 FM 96.3 ■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 원주 FM 94.9 ■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 울산CBS FM 100.3 ■ 포항CBS FM 91.5 ■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 어음 FM 90.9 ■ 강원영동CBS FM 91.5 ■ 전남CBS FM 102.1 / 순천 FM 89.5 ■ 청주CBS FM 91.5